

[지상 일대일강좌] 일대일호와 보물섬

강철호 집사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팀장) / 2002

소수의 용기있는 자들이 일대일호에 승선하였다. 그들의 항해목표는 천국보물이 묻혀있는 보물섬이다. 일대일호는 선장되시는 예수님께서서 항해를 맡고 계셨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선장은 보물섬의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일대일호가 틀림없이 보물섬에 도착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들은 일대일호의 선장과 오랫동안 함께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선장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만 한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선장을 신뢰하면서 그의 명령과 제스처와 표정을 주시하며 날마다 항해를 계속하였다 (큐티). 항해도중 보물섬의 위치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 (성경말씀) 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서 일대일 본부와 쉬지 않고 교신하였다 (기도). 그들은 배 안에서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즐겁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교제). 그들은 또한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파선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구원하여 일대일호에 끌어 올렸다 (전도). 그러나 더러는 그들을 해적선으로 오해하여 구원의 밭줄을 외면한 자도 있었다.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에 닻을 높이 올리고 신나게 항해하고 있었다 (성령충만). 그런데 서서히 일대일호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좌우로 심하게 요동하였다. 그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물밑에 숨어있던 암초 (시험) 에 걸린 것이다. 선장의 안타까운 경고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고 그만 일대일호가 좌초하고 만 것이다 (시험에 빠짐). 원인은 너무나 순탄한 항해가 지루해지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근무지를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보물을 탐내던 일부 선원들이 키를 잡고 있던 선장을 밀어버리고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배의 방향을 돌려버린 것이다 (사탄의 유혹).

배가 요동치자 정신을 차린 나머지 선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힘을 모아 파손된 일대일호를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시험을 이김). 그리고 선실로 뛰어 들어가 배 키를 가로챈 일당을 처치하고 원래의 선장에게 다시 키를 돌려주었다 (중심되신 그리스도).

가장 먼저 선장의 추상같은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모두 힘을 합해 파손된 선박을 원상 복구하였다 (순종하는 삶). 심한 풍랑으로 본부와의 교신마저 두절된 상태인지라 모든 선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항해지도와 선장의 인도를 따라 요동치는 일대일호에서 며칠 밤낮을 항해하였다 (성령충만한 삶). 그러던 어느날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한 섬 하나를 발견하였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보물섬에 도착한 것이다.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배 밖으로 뛰어나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보물섬에 숨겨진 보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축복) 을 찾기 위

해 나섰다. 틀림없이 보물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땀흘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였다 (사역). 아름다운 보물 (일대일 사역의 열매) 을 기대하며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는 온 섬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 강철호 집사 (일대일 제자양육사역팀장)

* 출처 - 은누리신문